

신안 해상풍력단지 민관협의회 출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출범식이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어업인·대학·전문가 등 30명 참여... 입지 선정·수익 활용 등 논의 전남도 '1단계 4.5GW 사업' 내년 초 산자부 집적화단지 지정 목표

전남도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가 4일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정부, 민간, 공여,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민관협의회는 위원장인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전남도와 신안군 정부위원 5명 ▲전남도의회, 신안군의회, 신안군어업인단체 대표, 지역별-업종별수협 등 민간위원 17명 ▲대학, 연구기관 등 공익위원 6명 ▲관련 전문가 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입지 선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추가 발생하는 수익 활용 방안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께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통해 2024년 초 산업통상자원부 집적화단지 지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

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전남도는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중 1단계 4.5GW 사업을 대상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수산업 공존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되면 주민이 찬성하는 계획적인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어업인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므로 주민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추진 시 부여되는 이익공유와는 별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치(최대 0.1)가 부여돼 어업인,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 및 공공·복지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근거가 마련돼 국토 난개발 방지 및 발전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에 향후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사전 해상교통 안전진단 실시 및 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안을 마련했다. 2022년부터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박창환 부지사는 "앞으로 민관협의회 협의의를 통해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며 "민관협의회 출범식이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해상에는 계획용량 30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100(RE100), 탄소국경세 등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첨단산업을 유지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지방시대위원회' 본격 활동

자치분권·균형발전 주요정책 심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시대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갈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병택 위원장(전남대 명예교수)을 비롯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산업, 교육, 기업 등 각계 전문가 19명과 광주 시 공무원(당연직 1명) 등 20명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 광주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광주시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 지역혁신용 복합단지 지정·육성 계획 심의 등 법적 부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4대 특구(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계획의 구체화 및 발전방안 마련 등 지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은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노무현 정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SOC사업 등 여타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며 "이제 그 절반의 성공에 기초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전남도도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과 위촉직 위원 18명, 당연직위원 2명 등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남도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장기 및 시행계획, 주요사업 등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행하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지역혁신 정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을 견인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제 1차 회의를 갖고 '전남도 지방시대 계획(안)'과 '전남-광주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을 심의했다. 전남도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5대 추진 전략에 맞춰 132개 사업의 밀집도를 그려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에 이어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을 통해 한반도 최남단 전남이 진정한 지방시대의 포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봉안당·화장장 등 장사시설 확충

시, 설계 공모...277억 투입 2026년 신규 시설 가동 목표

광주시가 장례문화 변화 등으로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봉안당 등 장사 시설 확충에 나선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광공원 3단계 장사 시설 확충을 위한 화장장, 봉안당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심사를 통해 당선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거쳐 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 말까지 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1년여간 공사 후 2026년에는 신규 시설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했다. 공사를 마치고 봉안당 1호관은 4만5000기 규모 제3 봉안당(추모관), 화장 시설 6기가 추가로 들어서게 된다. 광주시는 이와 별도로 2만5000기 규모

자연장지도 신설해 공급 부족에 대비할 방침이다. 장사시설 확충 사업에는 국비 100억원, 지방비 177억원 등 모두 277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연구 용역에서 광주 봉안시설은 2030년 이후, 자연장 시설은 2028년 이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화장률은 2021년 기준 92.6%로 전국 평균(90.8%)을 웃돌았으며 시민들은 화장 후 유골 처리 방법으로 봉안시설(49.8%)이나 자연장(36.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는 79곳, 55만㎡에 달하는 공설 공동묘지, 무연고 분묘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서 29개사 참여 상생 일자리박람회

내일 DJ센터...광주메디헬스산업전시회와 시너지 기대

광주시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광주전남상생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주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중소·중견기업, 메디헬스산업 가정·자동차산업, 에너지 신산업기업 등 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여한다. 48개 부스에서는 구인·구직자 현장면접, 취업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행사는 채용면접관, 취업컨설팅관, 고용정책홍보관, 부대행사관으로 4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채용면접관에서는 29개 기업이 직접 참여해 총 12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고용정책홍보관에서는 국·시비 지원사업과 다양한 맞춤형 고용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부대행사관에서는 인공지능(AI) 자소서 솔루션 체험존을 운영하고,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이미지 메이킹 등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지원

할 예정이다. 또 이번 박람회는 2023년 광주메디헬스산업전과 함께 개최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일자리플랫폼 또는 광주메디헬스산업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대범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광주와 전남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중요한 협업과 발전의 기회가 되는 뜻깊은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사회·기업들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해남 고구마빵, 외식업체 경진대회 '대상'

장성 시골밥상 우수상...메뉴 개발·홍보 지원 외식산업 선도

해남 고구마빵 피낭시에, 장성 백련동 시골밥상이 '2023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외식업체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지역 소상공인이 빵으로 만들고, 지역 청년 요리사들이 저렴한 밥상으로 구성해 판매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진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했다. 농업자원을 활용한 우수 식당과 카페를 지역 유명 점포(엥크 스토어)로 육성해 도시민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및 농촌활력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 고구마빵 피낭시에는 해남에서 생산된 유

기능 쌀과 고구마를 활용한 고구마 원형 그대로의 모양을 살린 빵을 만드는 제빵업체다. 지역 농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성 백련동 시골밥상은 지역 소농업인의 뜻난이 농산물을 수매, 청년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한끼 밥상을 6천 원에 제공하는 외식업체다. 맛과 함께 축산을 산책하는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두 업체는 유명 요리사와 협업을 통한 메뉴 개발과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WORLD DRONE FESTA 2023 NAMWON, KOREA
2023. 10. 6(금) ~ 10. 9(월)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흥이 넘치고 놀거리 가득한 제31회 흥부제

2023. 10. 7(토) ~ 10. 9(월) · 사랑의광장 일원

2023 남원 문화재야행

광한청허부, 달나라궁전으로 초대
10.7 토-10.9 월 18:00-23:00
광한루원 · 요천월궁광장일대